

“인천공항 출입국 서비스 개선을 위해 ‘원팀’으로 협력”

- 법무부·문화체육관광부·국토교통부, 인천공항 입국장 현장 방문 -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오늘 오후(3. 27. 금 16:30)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와 함께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하여 입국심사장 등 출입국 서비스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 3개 정부 부처의 담당부서 과장 및 실무자 참석

이번 현장 방문은 지난 2월 25일 대통령 주재 ‘제11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발표된 ‘출입국 편의 제고 방안’의 현장 이행 계획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올해 1~2월 외국인 단기 방문객은 214만 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 168만 명보다 약 28% 증가하였는데, 이에 대비한 입국심사 인프라도 충분히 확보되었는지 현장 점검을 진행하였습니다.

* (외국인 단기 방문객) 사증면제, 관광통과, 단기방문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인

인천공항에 도착한 외국인들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입국할 수 있도록 「자동출입국심사 사전등록 키오스크」를 설치하는 등 입국심사 대기 시간을 대폭 단축하는 방안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외국인 관광객이 지방공항 국내선으로 환승하는 동선에 불편함이 없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정성호 장관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가 ‘원팀’으로 협력하여 방한 관광객 3,000만 명 시대를 앞당겨서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매진해 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담당 부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책임자	과 장	김태형	(02-2110-4035)
	출입국심사과	담당자	사무관	이동용	(02-2110-4045)